

국별 리포트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 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757천km ²	GDP	1,958 억 달러(2010년)
인구	17.10 백만명(2010년)	1인당 GDP	11,452 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Peso(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510.25(2010년 말)

- 남미 대륙 남서부 태평양연안 국가로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구는 약 17백만 명이며, 인종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66%, 백인이 29%, 원주민이 5%로 구성되어 있음.
- 피노체트 군부독재(1974~1989) 이후 국민화합을 중시하는 점진적이며 온건한 민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풍부한 광산자원, 임산자원,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자유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해 1990년대 이후 연평균 5.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과를 달성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4.6	3.7	-1.5	5.2	6.0
재정수지/GDP	8.8	5.2	-4.4	-0.3	0.8
소비자물가상승률	4.4	8.7	1.5	1.4	3.1

자료: IMF, EIU

□ 빠른 경기회복세 시현

- 칠레 경제는 1985년 이후 연평균 5.4% 성장하는 등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여 왔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08년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3.7%로 낮아졌고, 2009년에도 상반기까지 이어진 급격한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그리고 수출 감소로 인해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1.5%)을 기록하였음.
- 2010년 들어서 2월에 강도 8.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경제가 다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한편, 세계경기 및 구리가격 회복세 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로 5.2%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2월 27일, 규모 8.8의 강진과 쓰나미의 발생으로 500여명의 사망자와 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지진피해액은 297억 달러 (GDP의 17%)로 집계됨.

- 2011년 들어서도 소비 증가와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한편, 국제 구리가격의 고공행진 지속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와 농수산물 수출 증가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며, 금년 전체로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안정세 유지

-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강세와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원유와 농산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이들 품목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물가가 큰 변동을 보이는 등 다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08년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수출물량 축소로 촉발된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인해 13년 만의 최대치인 8.7%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9년 들어서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추세, 페소화의 강세 반전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1.5%로 대폭 낮아졌음.
- 2010년의 지진피해로 인한 농수산물 공급 감소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및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페소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에 힘입어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전년과 비슷한 1.4%를 기록함.
- 금년 들어서도 내수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3%±1%)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칠레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강화와 페소화의 강세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 수준의 상한선인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3월 17일 칠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3.50%에서 4.00%로 0.50%p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

□ 재정 건전성 매우 양호

- 칠레 정부는 2000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GDP의 1%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수지 흑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재정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

- 그 결과 재정수지는 2004년에 흑자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도 구리의 국제 가격 상승 및 FTA에 따른 수출 증가, 경기호조에 따른 세원 확대 등 재정 수입 증대로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6~08년 GDP의 5%를 상회하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와 국제 구리 가격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6년 만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하였음.
- 2010년에는 대규모 지진피해 복구 작업, 빈곤층 지원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 정부가 피해복구 재원으로 구리 수출로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현재 167억 달러)을 활용하고 주요 광업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추가 징수하는 등 세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균형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금년에는 경기 활성화와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로 소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구리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구리 등 광산물, 포도 등의 농산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함.
- 칠레의 총수출의 절반 이상이 구리 수출이었음. 최근 수년간 銅의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높은 수출신장률을 기록하였으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제조업 기반 상대적으로 취약

- 수입자유화 등 급진적인 시장개방으로 국내 제조업이 성장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칠레는 광업 위주의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의 발전 단계를 건너 뛰어 바로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나. 성장 잠재력

부존자원 풍부

- 칠레는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1/3을 보유한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요오드, 몰리브덴, 초석, 리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이들 자원이 지표면에 가까이 매장되어 있어 채광의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음.

지형학적 장점 보유

- 칠레는 남북으로 4,000km를 넘는 해안선이 태평양에 접해 있으며, 긴 해안선을 따라 일찍이 형성된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로의 진출도 용이하여 중남미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연결하는 무역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정학적 장점을 지니고 있음.

다. 정책성과

경제개방 지속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 지속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아 정부 주도의 수입대체 산업화 경제정책을 추구한 반면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가 집권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음.
-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탈피하여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 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국내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음.

- 거시경제 안정과 더불어 정부 규제의 투명성, 의사결정 예측가능성 등이 칠레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환경, 국가경쟁력, 경제자유지수, 부패인식지수 등 각종 국가순위 지표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함.

- *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순위: 43위/175개국(2011년)
- * 다보스 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순위: 30위/133개국(2010~11년)
- *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순위: 11위/179개국(2011년)
- *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1위/163개국(2010년)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7,458	-2,513	4,217	639	-1,658
경 상 수 지 / GDP	4.5	-1.5	2.6	0.3	-0.7
상 품 수 지	23,941	8,848	13,982	15,123	14,188
수 출	67,972	66,464	53,735	69,622	75,294
수 입	44,031	57,617	39,754	54,499	61,106
외 환 보 유 액	16,695	22,849	23,849	26,318	36,137
총 외 채 잔 액	56,542	64,277	73,545	88,222	96,429
총 외 채 잔 액 / GDP	34.4	37.6	45.0	45.1	42.0
D. S. R.	13.8	18.2	17.6	17.4	18.3

자료: IFS, EIU

□ 수출호조 지속

- 최대 수출상품인 구리 국제가격 상승으로 칠레의 총수출 규모는 2003년 21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680억 달러로 3년 간 3.1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세 반전으로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2009년에는 전년대비 약 19% 감소한 537억 달러로 축소됨.

- 2010년에는 중국, 브라질 등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기회복 및 구리 가격

상승으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29.6% 증가한 696억 달러를 기록함. 금년에도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수출액은 7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칠레 구리위원회(Cochilco)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2월 평균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이며, 연초대비 22.4% 상승한 파운드당 4.1달러를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전환

- 銅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해 왔음.
-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2003년 37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39억 달러로 4년 간 6.5배가 증가하였음. 2008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88억 달러로 소폭 축소했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9~10년에 각각 140억 달러와 151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의 영향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왔던 경상수지도 2004~07년 동안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 2008년에는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축소로 인해 경상수지가 소폭의 적자로 돌아섰고, 2009~10년에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다시 흑자로 전환됨.
- 금년에도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는 142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 확대로 경상수지는 소규모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 대폭 증가

- 2003년 이후 내수경기 회복, 미국· EU· 한국·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가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광업, 전력, 용수 등 인프라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DI 유입액은 2002년 20억 달러 수준에서 2008년에는 151억 달러로 매년 급증세를 보임.
- 2009년에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광산 프로젝트 지연으로 FDI 규모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수익 상승으로 칠레 광업진흥공사(Codelco)를 비롯한 광업회사들이 그간 미루었던 광산 프로젝트 발주를 재개함에 따라 광업 부문 중심으로 대 칠레 FDI가 급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5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금년에는 2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폐소화 강세 지속**

- 수출호조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폐소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2009년 상반기에 달러당 530페소에 달했던 환율이 12월에 들어서 470페소 이하로 하락하였음. 금년 들어서도 폐소화 강세가 지속되자 칠레 중앙은행은 금년 1월 3일 최대 120억 달러 상당의 달러 매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안정적인 정치체제 유지**

- 칠레는 실용주의적 중도 정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전통이 확립되어 있고, 다수정당이 난립하고 있으나 각 정당은 여당인 중도우파 연합(Alianza) 또는 야당인 중도좌파연합(Concertacion)에 소속되어 양당제 성격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2010년 1월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연합의 피네라 후보 당선**

- 2010년 1월 17일 중도우파연합인 '변화를 위한 동맹' 소속 후보로 2차 결선투표에 오른 세바스티안 피네라 (Sebastian Pinera)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기록해 48.39%에 머문 집권 중도좌파연합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Eduardo Frei Montalv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피노체트 이후 20년 동안 여당의 지위를 누렸던 중도좌파연합이 중도우파연합에 정권을 내주게 됨.

* 피네라 대통령은 포브스지에서 칠레 3위의 부자로 선정되기도 한 기업인으로, 중남미 최대 항공사인 LAN과 프로축구팀 콜로콜로(Colo-colo), 공중과 TV채널 칠레비시온(Chilevision) 등의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음.

- 바첼렛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80%를 상회하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좌파연합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바첼렛 전 대통령이 철저히 선거중립을 지켰고, 프레이 대선후보가 과거 집권기간 동안 경제위기를 초래한 전력이 있으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아직 미진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됨.

□ 자유주의 경제정책 기조 지속

- 중도우파정당 출신의 피네라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을 6% 대로 끌어올려 칠레를 고소득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 한편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투자 확대, 영세사업의 세금감면을 통해 일자리 백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힘.
- 피네라 정부는 2010년 3월 취임 직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세제 개편, 정부예산 조정, 기부법 활용, 조세회피 방지 방안 마련, 국채 발행,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과 시현

- 칠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층 축소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빈곤문제 해결관련 여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1990년 38.9%였던 빈곤층 비율은 2006년에는 13.7%로 낮아졌으며, 절대 빈곤층 비율도 17.4%에서 3.2%로 크게 감소함.
- 한편, 2010년 7월 칠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칠레의 빈곤층과 절대 빈곤층 비율이 각각 15.1%(256만4천명)과 3.7%(63만4천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빈곤문제 해결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시점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고용사정 및 사회적 동질성 양호

-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사정 악화로 실업률이 9.6%까지 일시 상승한 바 있으나, 2010년에는 다시 7.1%로 낮아지는 등 중남미 국가들 중 가장 양호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구의 90%가 백인 및 메스티조이고, 주민의 85%가 카톨릭 신자로 높은 사회적 동질성을 나타내고 있어, 인종, 종교간 분쟁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광산 붕괴 사건 이후 칠레 사회의 동질성이 강화되고 국가 이미지 상승

- 2010년 8월 8일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어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으나, 이후 69일 만에 전원 구조됨에 따라 칠레 사회의 동질성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산호세 광산 붕괴사고 발생부터 매몰 광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칠레가 보여준 신속하고 단호하며 효율적인 대응 능력은 피네라 정권 차원을 넘어 이 나라가 그동안 축적해온 국가적 역량을 국제사회에 입증하고, 칠레의 국가 이미지가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음.

□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낮음

- 여당연합(Alianza)과 야당연합(Concertacion)내 각 정파가 경제· 교육· 사회 복지정책 등에 대해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체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회문제 해결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어, 일부 노조 및 학생 시위는 있어도 대규모 소요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3. 국제관계

□ OECD 31번째 회원국 가입

- 칠레는 2010년 1월 11일 남미 국가로서는 처음이자, 중남미 국가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31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OECD는 성명에서 “칠레를 OECD 회원국으로 승인한 것은 거의 20년간 이루어진 민주적 개혁과 건전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가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칠레의 위상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활발한 통상외교 전개

- 미국, EU 등과는 FTA 체결 이후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FTA를 적극 체결하는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
- 아르헨티나, 페루 등 인접국과 에너지 및 운송 네트워크 통합을 확대하고 국경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2004년에 아르헨티나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칠레 가스 수출 축소로 발전용 천연가스의 100%를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입하는 칠레가 전력난을 겪으면서 양국간 갈등을 빚은 바 있고, 인접국인 볼리비아, 페루와의 국경문제가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9	2010
한국수출입은행	B1	B1
OECD	2등급	2등급
S&P	A+(stable)	A+(stable)
Moody's	A1	Aa3
Fitch	A	A+

각종 신용평가기관에서 중남미 최고 신용등급 부여

- 칠레는 효과적인 재정정책, 정부의 투명성, 금융부문 안정 등을 이유로 Moody's와 S&P 그리고 Fitch로부터 각각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AA3, A+, A+ 등급을 부여 받고 있음.
- 2010년 6월 Moody's는 대지진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재정수지 관리와 빠른 경제회복세를 시현한 점 등을 반영하여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2월 Fitch도 칠레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 강화 등을 감안하여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였음.
- 한편, OECD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동국 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음.

2. 외채 상환 태도

해외자금조달이 원활하며, 외채상환태도 양호

- 1982년 중남미 외채위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민간은행 외채 67억 달러의 지급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대외 신인도 유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왔음.

- 1985~90년 사이 채무주식화 방식(debt-equity swap)으로 외채를 재조정하여 약 100억 달러의 채무부담을 경감한 바 있음.
- 신흥시장 외환위기 여파로 인해 한 때 해외차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며, 외채 상환태도가 양호하고 1990년 이후 IMF의 자금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3. 주요 ECA 인수 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06/12 (북한과의 수교 :)

□ 주요협정: 무역협정('77), 항공협정('79), 경제·기술협력협정('82), 문화협정('83) 과학기술협정('94), 투자보장협정('96), 이중과세방지협정('02), 자유무역협정('03)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12월 누계, 총투자 기준) : 46건, 132,422천달러

<표 5> 한·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3,031,843	2,229,062	2,947,054	자동차, 직물, 전자제품
수 입	4,127,354	3,103,300	4,221,395	동, 원목, 수산물
합 계	7,159,197	5,332,362	7,168,44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 국가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 지속세

- FTA 체결 이전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10억 달러대 수준이었으나, FTA가 발효된 2004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67.7%의 높은 성장을 보였음.
-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사상 최대인 7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폭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증가하여 교역규모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71억 달러(수출 29억, 달러, 수입 42억 달러)로 증가함.
- 한편, 구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구리수입 증가로 우리나라가 10억 달러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대 칠레 직접투자도 지속 증가

- 우리나라의 대 칠레 직접투자 규모는 2010년 12월말 현재 신규법인수 46건 및 투자액 132백만 달러로 대부분 도소매업과 광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칠레는 시장경제 체제의 지속적 추진과 국제 구리 가격의 상승, 주요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을 지속하는 등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성적을 보여 왔음.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 경색, 강도 8.8의 대지진으로 인해 일시적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나, 이후 매우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제 전망도 밝은 것으로 평가됨.
- 2010년에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OECD 회원국이 되었으며, 비즈니스 환경, 국가경쟁력, 경제자유지수, 부패 등 각종 국가순위 지표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여야간 합의에 기초한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빈부격차, 치안, 부정부패 등에 대한 우려도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정치, 사회적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구리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이나, 재정흑자목표제, 물가목표제 그리고 자유변동환율제와 같은 제도적 경제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양호한 국제 신인도와 대외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경제가 안정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등급을 유지코자 함.

문의 : 선임조사역 김영석(☎3779-5718)
E-mail : claudio@koreaexim.go.kr